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참고자료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문의: 원전환경과 김정화 과장(2110-5531), 박성우 서기관(5536), 방만희 주무관(5534)

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1. 추진현황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는 「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」를 원전소재지역·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출범한다는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음

○ 그간 원전지역·시민사회단체·정치권 등과 공론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총 50여회 이상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간담회·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음

○ 공론화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만큼,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

□ 특히, 산업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위원회*를 지난 7월에 구성하였음

* 추천위원회의 역할은 원전지역·시민사회단체의 추천 인사를 제외한 인문사회·기술공학분야의 공론화위원을 추천함

○ 추천위원회는 기술분야 1명, 인문분야 2명, 시민환경단체 4명 등 총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(위원장: 김영주 前 산업자원부장관, 위원: 별첨)하였으며, 현재 공론화위원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

□ 아울러, 원전소재지역과 시민사회단체와 공론화위원회 참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

○ 원전지역특별위원회(가칭)는 각 원전소재지역에서 2명씩 추천하여 구성되며, 현재 4개 지역에서 추천하였음

* 경주시·기장군·울주군·울진군 등 4개 지역에서 추천

○ 시민사회단체 4명 중 2명의 공론화위원을 추천할 예정인 환경단체는 공론화위원회 독립성 유지 원칙, 범부처 소통체계 마련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, 최종 참여 여부는 향후 결정할 예정임

2. 향후계획

□ 산업부는 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공론화위원을 인선하고, 원전지역·환경단체와 협의를 원활히 마무리하여 공론화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박성우 서기관(☎ 02-2110-553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 **공론화위원 추천위원회 현황**

구분	성명		現 소속	주요경력
위원장		김영주	법무법인 세종 고문	· 산자부 장관('07) ·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('06)
기술공학		박군철	서울대학교 명예교수	·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(現) ·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('10)
인문사회		최현철	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	· 한국언론학회 회장(前) · 언론중재위원회 위원(前)
시민사회환경		김재옥	국제소비자기구 부회장	·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(現) ·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위원장(前)
		정회성	(사)환경과 문명 대표	·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(前) ·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(前)
		김일중	동국대학교 교수	· 환경정의 공동대표(現) ·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('06~'08)
		이선우	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	·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사장(現) ·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(前)